법조인 동정

법무법인 태평양, 신임 업무집행대표에 서동우 변호사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은 서동우 변호사(사법연수원 16기)가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.

서동우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에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, 사법연수원도 수석으로 수료했다.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(LLM)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.

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곧바로 태평양에 입사했다. 이후 기업인수합병 및 기업지배구조, 외국인투자, 해외투자, 경영권 분쟁,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, 금융규제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섭렵하며 자문 업무를 총괄해왔다.

서 대표변호사는 "태평양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 높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로펌을 만들겠다."고 밝혔다.

태평양은 지난해 3월 강남에서 종로로 이전한 뒤 ESG 대응팀, 위기진단대응본부, 모빌리티팀, AI팀을 신설했다.